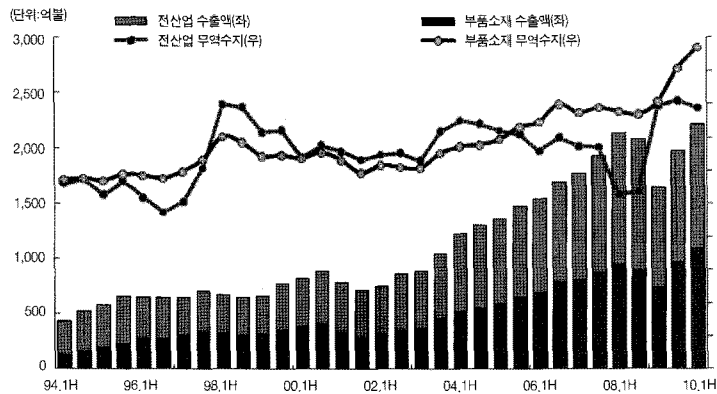


부품소재 성장형흑자구조

'10년 상반기 부품·소재산업은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견조한 수출증가세를 보이며 수출(1,095억불), 무역수지(372억불) 모두 반기기준 사상 최대 성과를 기록하였다.
전산업(억불, 전년동기대비증가율%)은 수출

(2,225, 35.0), 수입(2,035, 40.0), 수지(190)이고, 부품소재(억불, 전년동기대비증가율%)는 수출(1,095, 47.9), 수입(724, 35.3), 수지(372)이다.
반기기준 무역수지 흑자 감소세를 기록하고

【 전산업 및 부품·소재산업 수출 및 무역수지 동향 (잠정, 통관기준) 】



있는 전산업과는 달리, 부품소재는 10개월 연속 50억불 이상의 흑자를 기록 하면서 증가세를 유지하였다.

이는 유로존 재정위기와 유가상승 등의 제약 요인에도 불구하고 부품·소재 수출 및 무역수지 모두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성장형 흑자' 구조로 전환되었음을 나타낸 것이다.

수출에서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신흥국에 대한 수출호조로 모든 부품소재 업종에서 두 자리의 높은 증가세를 보이며 전년동기대비 47.9% 증가하였다.

특히, 자동차차체용부품(전년동기대비 121.0%), 자동차엔진부품(전년동기대비 243.3%) 등의 수송기계 및 기타 개별소재 반도체(전년동기대비 193.2%) 등의 전자부품의 수출이 전년동기대비 큰 증가세를 나타내었다.

수출증가 업종(역불, 전년동기대비증가율%)은 일반기계부품(87, 24.1) 전자부품(414, 60.1)이다.

수입에서 수출회복에 따른 자본재·소비재 부분의 수입확대와 국제유가 상승, 전년 기저효과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전년동기대비 35.3%의 높은 증가세를 보였으나, 상반기 수출 증가세보다는 하회하였다.

업종별로는 반도체제조용장비부품(전년동기대비 155.3%) 등의 일반기계부품과 액정표지장치(전년동기대비 134.1%), 다이오드(전년동기대비 102.2%) 등 액정 관련 전자부품 수입이 증가세를 나타내었다. 수입증가 업종(역불, 전년동기대비증가율%): 일반기계부품(83, 27.0) 전자부품(193, 28.5)이다.

무역수지는 전산업(무역수지 190억불 흑자) 흑자의 2배를 초과하는 372억불 흑자를 기록, 전산업 무역흑자를 견인한다. 부품분야 흑자는

【 부품·소재 수출입 실적(잠정, 통관기준) 】

(단위 : 억불, 전기대비 /전년동월대비 증감율(%))

구분	'09년 상반기	'10년															
		상반기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수출	전산업	1,648	Δ23.0	2,225	35.0	307	45.8	332	30.5	374	34.3	394	30.0	391	40.5	427	32.4
	부품·소재	741	Δ21.6	1,095	47.9	165	71.9	160	45.0	191	50.0	193	42.1	193	47.1	194	38.2
	소재	255	Δ24.1	355	39.3	54	55.9	52	32.8	61	38.2	64	38.7	62	41.4	62	32.5
	부품	486	Δ20.2	740	52.4	111	80.8	108	51.6	130	56.3	128	43.9	131	50.0	132	41.1
수입	전산업	1,454	Δ34.2	2,035	40.0	314	26.3	310	37.5	355	48.3	354	42.0	350	49.4	352	36.7
	부품·소재	535	Δ30.1	724	35.3	107	35.0	104	34.0	127	41.4	130	32.9	123	37.8	133	31.4
	소재	212	Δ35.4	300	41.3	43	33.7	44	40.8	51	39.5	55	43.1	53	51.6	54	38.8
	부품	323	Δ26.2	424	31.4	64	35.9	60	29.4	76	42.8	75	26.4	70	28.9	79	26.8
무역수지	전산업	194		190		Δ7		22		19		40		41		75	
	부품·소재	206		372		58		56		64		63		70		61	
	소재	43		55		11		8		10		10		9		8	
	부품	163		316		47		48		54		53		61		53	

316억불, 소재분야 흑자는 55억불로 흑자규모 격차가 심화되었다.

국가별·지역별로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부품 소재 무역수지 흑자 증가를 보인 반면, 對日 무역수지 적자는 확대되었다. 對中 무역수지는 반기기준 사상최대인 225억불의 흑자를 기록하여 전년동기대비 1.7배 이상 증가(전년동기 무역수지 133억불)하였다.

對中 부품소재 실적(억불, 전년동기대비증가율%)은 수출(400, 53.8), 수입(175, 38.4), 수지(225)이다. 수출은 중국 정부의 지속적인 투자 및 소비 확대정책에 따라, IT기기, 자동차 등의 생산이 증가하며 전자부품(전년동기대비 76.5%)과 수송기계(전년동기대비 66.2%) 등이 수출 증가세를 주도하였다.

수입은 국내 경기회복에 따른 소비심리 회복 및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전자부품(전년

동기대비 38.6%), 1차금속(전년동기대비 28.7%)등이 전년동기대비 수입 증가하였다.

對日 무역수지는 상반기 120억불 적자를(전년동기 무역수지 △91억불) 기록하여 적자폭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전체 교역에서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진적으로 하향 추세이다.對日 부품·소재 실적(억불, 전년동기대비증가율%)은 수출(63, 41.1), 수입(183, 35.4), 수지(△120)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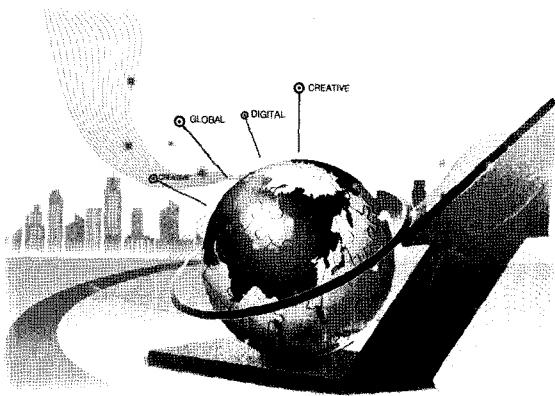
수출은 일본의 내수경기 회복이 부진한 가운데 일본 수출경기 회복의 영향으로 제1차금속(전년동기대비 70.1%) 및 전자부품(전년동기대비 36.7%)을 중심으로 증가세 시현이다. 수입은 열연강판·TAC 필름, LCD 유리원판 등 대일 수입의존도가 높은 핵심 소재 및 부품의 경우 증가세를 보인다.

이러한 실적은 우선, 부품소재 '성장형 흑자' 구조 안착이라는 점을 들 수 있다. 금융위기 직

【 상반기 부품소재의 주요국별 교역실적 추이 】

(단위 : 억불)

구분	대세계	주요국별								
		일본	중국	중동	유럽	미국	중남미	ASEAN	여타국	
수출	전 산업	2,225	128	557	134	328	235	175	256	660
	부품·소재	1,095	62	400	49	128	95	58	118	302
	소재	355	28	103	22	35	22	16	52	129
	부품	740	35	296	27	93	73	42	65	174
수입	전 산업	2,035	308	336	398	268	201	62	216	465
	부품·소재	724	182	175	9	106	81	15	66	155
	소재	300	99	63	7	38	24	12	17	57
	부품	424	84	112	2	68	57	3	49	98
무역수지	전 산업	190	-179	221	-264	60	34	113	40	195
	부품·소재	372	-120	225	40	22	14	43	51	148
	소재	55	-71	40	15	-3	-2	4	35	72
	부품	316	-49	184	25	25	17	38	16	76



후 부품소재 분야 흑자는 수입감소로 인한 '불황형 흑자' 였던 것에 반해 '10년 상반기는 부품소재 수출의 안정적 성장세를 이어가며 '성장형 흑자' 구조로 전환된 것이다.

둘째, 부품소재 對中 교역 확대 지속이다. 중국에 대한 전년도 부품소재 수출은 전체의 36.5%를 차지해 가장 비중이 높았고, 수입 역시 전체의 24.2%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상반기 국가별 부품소재 수출 비중(%)은 중국(36.5), 유럽(11.7), 미국(8.7), 일본(5.7)이다. 상반기 국가별 부품소재 수입 비중(%)은 일본(25.2), 중국(24.2), 유럽(14.7), 미국(11.2)이다.

셋째, 대일 부품소재 교역 비중 완화이다. 부품소재산업 동향과 이슈 분석(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따르면, 대일 부품소재 무역적자는 지난 10년간 연평균 6.2%(전산업 10.4%) 증가하며 '09년 201억불을 기록, '10년 상반기 120억불 기록하였다.

그러나, 수입다변화 및 수입대체 경쟁력 향상 노력 등으로 부품소재의 대일 수입 의존도 완화

및 적자 비중 감소세를 볼 수 있다.

부품·소재 수입 중 對日 수입 비중 추이(%)는 28.0%('00) → 28.4%('03) → 25.6%('06) → 25.3%('09) → 25.2%('10.상반기)이다. 전산업 對日 무역수지 적자 중 부품·소재 무역수지 적자 비중(%)은 103.2%('00) → 73.0%('03) → 61.3%('06) → 72.7%('09) → 67.0%('10.상반기)이다.

하반기 전망을 보면, '10년 하반기 부품소재 산업의 종합적인 업황은 호전 전망이다. 상반기 업황 호조에 이어 하반기에도 '전자부품(150.0)', '조립금속제품(146.5)', '수송기계부품(145.1)' 등을 중심으로 업황 호전이 기대된다. 업황 BSI는 부품소재(133.8), 부품(140.4), 소재(124.4)이다.

하반기 부품소재산업은 내수가 수출보다 호전 전망이다. 소재는 내수 중심 호전 기대되는 반면, 부품은 수출 중심으로 호전 전망이다. 내수 BSI는 부품소재(135.0), 부품(138.3), 소재(130.4)이고, 수출 BSI는 부품소재(132.1), 부품(139.4), 소재(122.2)이다.

채산성 개선 및 설비투자와 고용 호전 기대를 들 수 있다. 고용은 소재중심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다만, 채산성은 '전자부품(129.2)', '수송기계부품(135.3)' 등의 부품 중심으로 호전 전망이다. 설비투자 BSI는 부품소재(124.5), 부품(124.2), 소재(125.0)이고, 고용 BSI는 부품소재(114.5), 부품(112.1), 소재(117.9)이다. 채산성 BSI는 부품소재(117.6), 부품(120.8), 소재(113.1)이다.

'국내외 경기 회복 지속' 이 하반기 부품소재

산업 경기 호조의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다만, 금리인상으로 대출조건이 나빠지는 등 '자금사정' 악화가 부품소재산업 경영 환경을 다소 어렵게 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영환경 요인 BSI는 해외 선진시장 수요여건(103.9), 국내경제(128.9), 자금사정(90.4)이다.

부품소재의 제품 생산 비용 관련 지표들이 크게 상승하여 기업 경영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원자재가격', '국제유가', '임금', '금리' 등이 크게 상승할 전망이다. 거시변수 BSI는 원자재가격(164.4), 국제유가(159.5), 금리(150.1), 임금(147.9)이고, 경영에 미치는 영향 BSI는 원자재가격(30.5), 국제유가(45.1), 금리(60.2), 임금(60.9)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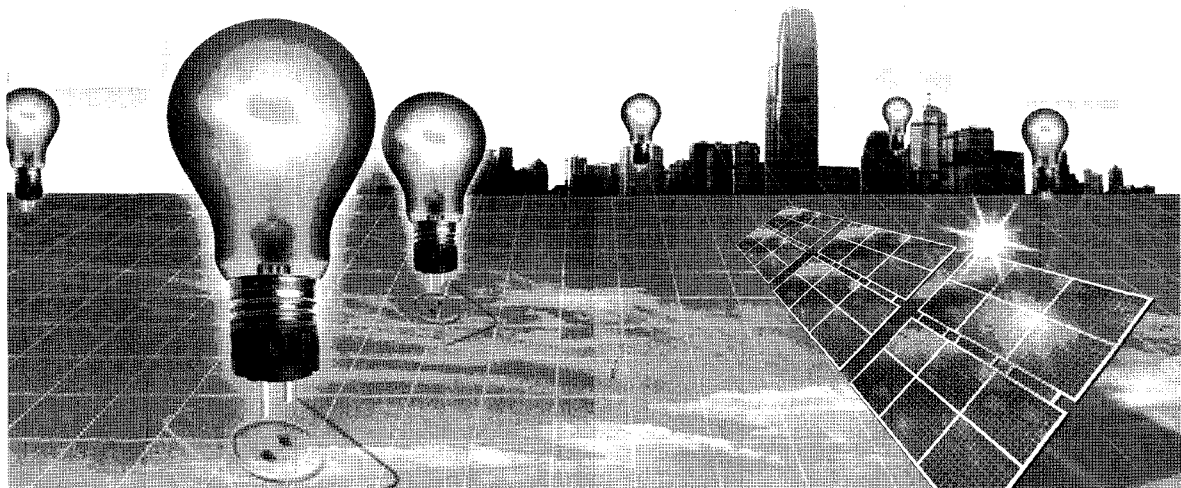
해외 신흥개도국 중심의 수출 확대를 들 수 있다. 중국을 비롯한 아세안 지역의 수출은 호조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나 유럽 수출은 남유럽 재정위기에 따른 여파로 부진할 전망이다. 수출전망 BSI는 중국(135.4), 아세안(124.1), 유럽

(78.0)이다.

부품소재 기업의 채산성 확보를 위한 적정 환율은 1,129.3(원/달러)이다. 부품이 소재보다 높은 적정 환율(원/달러) 수준을 보였으며, 업종별로는, '전자부품'의 적정 환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적정환율 수준(원/달러)은 부품소재(1,129.3), 부품(1,130.0), 소재(1,128.3)이다.

남유럽 재정위기가 확대될 경우 수출 및 경상이익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유로화 하락에 따른 경쟁력 약화로 채산성이 악화되고, 유럽 재정위기에 따른 수요 감소 및 긴축재정 실시 등이 자체 수요 감소로 이어져 수출과 경상이익이 줄어들 전망이다. 수출에 미치는 영향 BSI는 부품소재(57.8), 부품(57.9), 소재(57.8)이다.

남북 정세가 악화될 경우 경기에 다소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 단기적으로는 달러화 상승, 장기적으로는 국가 신인도 하락이 발생할 수 있어 기업 경상이익 감소 우려된다. 생산에 미치는 영향 BSI는



부품소재(91.9), 부품(91.3), 소재(92.9)이고, 수출에 미치는 영향 BSI는 부품소재(89.0), 부품(88.8), 소재(89.3)이다.

컴퓨터 및 사무기기부품의 2009년 상반기는 수출이 16.9억(전년 동기대비 -36.5%), 수입이 16.7억불(-19.5%)이고, 2010년 상반기 수출이 21.3억불(26.3%), 수입이 19.9억불(19.2%)이다. 노트북 및 넷북 등의 중국 및 신흥시장 수요 증가로 컴퓨터의 주요 부품인 기억장치(전년동기대비 32.8%) 및 컴퓨터용 메인보드 및 카드(전년동기대비 13.2%)수출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전자, 영상,음향,통신기기부품은 2009년 상반기 수출이 258.3억불(-18.5%), 수입이 150.3억불(-29.7%)이고, 2010년 상반기 수출이 413.6억불(60.1%), 수입이 193억불(28.5%)이다. 스포츠 이벤트 특수 및 LCD TV, 휴대폰 등 수요산업 증가와 중국시장 업황호조로 수출 증가세를 주도한 것이다. 주요부품 수출액(억불) 및 증가율(%)은 집적회로반도체(77, 120.0), 메모리반도체 (49, 179.9)이다.

국가별, 지역별 금년 상반기 부품소재의 동향을 보면, 중국 등 아시아 신흥국 중심의 실물 경기 회복 영향으로 유럽 일부 국가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부품·소재 수출입 증가세를 시현하였다.

對中 무역은 중국의 경기부양책 및 IT, 자동차 등의 생산 급증으로 관련 부품의 수출입 모두 크게 증가하였다. 對日 무역은 제1차금속이 약진을 보이며 소재 분야 수출이 증가하였으나, 화학제품 등의 수입이 큰 폭으로 증가하며 전체 적자폭 확대되었다.

對美 무역은 '09년 큰 폭의 수출 감소를 보인 수송기계부품이 빠르게 회복세를 보이면서 무역 흑자를 견인하였다. 對유럽 무역은 유럽의 재정적자 위기에도 불구하고 전자부품 및 수송기계 부품 등 주요 업종의 수출 증가로 무역수지 흑자를 전환하였다. 對ASEAN 무역은 개도국의 빠른 경기 회복으로 전자부품 및 조립금속제품의 수출이 크게 증가하며 무역수지 흑자가 크게 증가하였다.

【 연도별 부품·소재의 주요국별 무역현황 】

(단위 : 억불)

구분	'01 상반기			'05 상반기			'08 상반기			'09 상반기			'10 상반기		
	수출	수입	수지	수출	수입	수지	수출	수입	수지	수출	수입	수지	수출	수입	수지
대세계	332	299	33	590	495	95	944	766	179	741	535	206	1,095	724	372
일본	34	83	△49	53	135	△82	70	180	△110	44	135	△91	62	182	△120
중국	48	26	22	180	86	95	289	207	82	260	127	133	400	175	225
중동	14	3	10	22	7	15	48	9	39	47	5	42	49	9	40
유럽	46	47	△1	69	79	△9	131	124	7	89	90	△1	128	106	22
미국	58	63	△5	67	75	△8	86	82	4	57	56	1	95	81	14
중남미	18	4	14	23	8	16	58	14	44	40	10	30	58	15	43
ASEAN	48	36	12	67	49	18	109	70	39	76	56	20	118	66	51
여타국	115	73	42	175	106	69	262	150	112	203	112	91	302	155	148